

대행 스님

한마음의 도리로 모든걸 커버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더불어 광명선원 신축 건물 착공식을 한마음 한몸으로 이렇게 같이 행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이 세상에 나서 이렇게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저 흙을 파내도 흙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물도 말없이 흐르고, 봄이 오면 말없이 잎이 푸르르게 나오고 꽃이 피는가 하면 가을이 되어 저절로 낙엽이 져서 떨어지곤 하지요. 이 무상의 도리를 여러분이 알아야만 이 세상을 살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무상의 도리다' 한다면 무심의 도리도 알아야 합니다. 무심의 도리, 즉 말하자면 원천의 도리를 인천으로서, 인간의 마음으로서 모든 것이 찰나에 이렇게 돌아간다는 이 점을 여러분이 캐치해야만이 물질세계로부터 벗어나서 정신세계로 들 수 있는 수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물질과학으로 첨단을 달린다고 하지만 정신세계로 첨단을 이루는 과학이 돼야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이 과학이니만큼 의학이나 모든 분야가 정신과학으로 첨단을 이룰 수 있어야만 되죠. 그러려면 우리 조그마한 인간의 씨가 우주를 싸고도 남음이 있고, 우주를 굴리고도 남음이 있고, 우주를 딛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광대무변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승려들이 여러분이 가져오는 쌀이나 물건으로 먹고살기 위해서 머리 깎고 염불이나 하고 중노릇을 하는 게 아닙니다. 머리 깎고 입산할 때는, 사문이 될 때는 이 세상에서 부모 형제 다 버리고 그 마음 하나의 씨 없는 씨를 발견하기 위해서죠. 그럼으로써 등불을 켜서 여러분의 길잡이가 되어 컴컴한 사람을 이끌어 가고 밝음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생활이 정신과학이며 의학도 정신의학이고, 일체가 정신으로부터 비롯되기에 한마음에 들지 않고는 첨단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어려운, 자기 몸을 불사하는, 자기를 헌 신처럼 버리는 그러한 사문이 된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입고 놀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고 해도 아니 되지만 여러분의 생각으로만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잘 지켜봐 주시기 바라면서 같이 한마음으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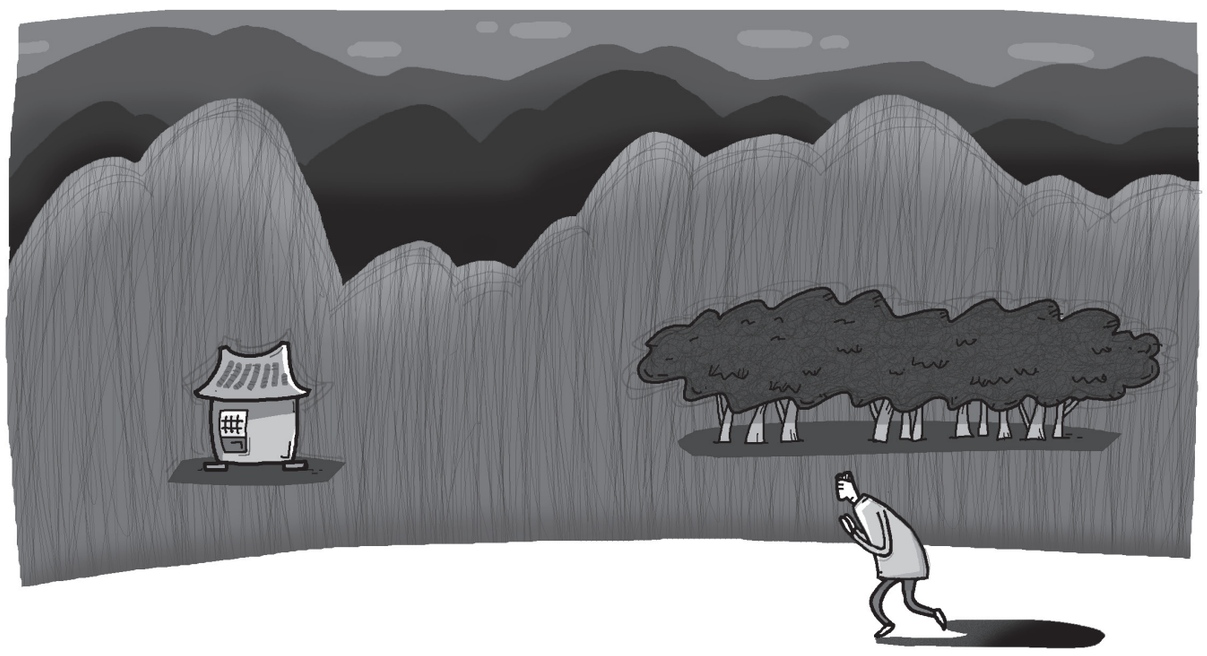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나는 응달에 앉았으면서 여러분은 이렇게 뜨거운 데 앉게 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여러분한테 한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번뇌 망상이 어디에서 나오느냐는 겁니다. 부모로부터 살을 빌리고 뼈를 빌려서 정자 난자와 같이 혼합이 돼서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그 생명들, 모습들이 생깁니다. 거기에서 하나가 남습니다. 이긴 거죠. 그 많은 생명들 중에서 하나가 이겼습니다. 근데 몸은 받았으나 그 영혼이 거기 결부가 돼야만이 삼신을 받아서 임신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거를 몰라서 내가 얘기해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더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거기에 또 묘한 것은요, 자기의 영혼이 거기에 혼합이 되는 동시에 자기가 인과로 받은 업식들이 말입니다, 악업 선업이 다, 자기 영혼이 들어가는 데 같이 포함돼서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몸 하나 받아서 자라는데 그 내부에, 세포에, 오장육부에 인과로 인해서 받은 모든 업식들이 한데 합쳐져서 길러집니다. 어린애가 자라면 자라는 대로 같이 자라죠.

그러니까 지금 수많은 생명과 모습과 의식들이 여러분 몸속에서 다 움죽거리고 생활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어야 비로소 여러분도 또 움죽거리게 되고 생활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생활을 안 해 주면 이 큰 덩어리 하나가 움죽거려지지 않습니다. "움죽거리지 않는다면" 하는 소리는, 우리 생명과 근본이 움죽거리지 않는다면 마음이 나질 않아서 이 지구도 움죽거릴 수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폐허가 되어 버리고 말겠지요.

그러니 우리 이 몸속에 악업 선업이 한데 합쳐 있으면서 여러분을 웃게도 하고 즐겁게도 하고 아주 참 감사하게 하기도 하고, 반면에 남을 죽이기도 하고 죽이게 하기도 하고 싸움을 하게 하기도 하고 밉게 하기도 하고 증오하게 하기도 하고 화도 나게 합니다. 인과로써 거기에서 자꾸자꾸 수많은 의식들이 나옵니다. 선업을 지은 건 선업을 지은 대로 자기 마음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오게 하고, 악업은 또 지은 대로 자기 마음을 통해서 악으로 나오니 그것을 어떻게 여러분이 다 커버하고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오는 것을 보면서 나쁘다 좋다 하는 마음 자체가 바로 다스리고 갈 수 있는 그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두 개 세 개는 아니지만 다스릴 수 있는 마음, 좋고 나쁜 걸 아는 마음, 이게 바로 인간의 마음이죠. 그리고 이 속에 들어 있는 그 모습들, 그 의식들에서 나오는 마음은 여러분이 다스리는 대로 따라갑니다. 좋고 나쁜 걸 아는 마음에서 생각하는 대로, 즉 인솔해 주면 인솔해 주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의식들입니다. 이런 걸 해서 나쁜지 이런 걸 해서 좋은지도 모르고 따라가죠.

그러니 여러분이 각자 좋고 나쁜 걸 아는 분들이니까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좋고 나쁜 걸 아는 그 마음이 다스리면서 좋은 결과가 즐겁게 나오걸랑 감사하게 거기 맡겨 놓고, 또 악으로 인해서 남을 이익 되지 않게 하는 마음이 나오걸랑 침착하게 거기에 놓고 굴려서 '아, 이렇게 나쁘게 나오는 것도 거기에서 인과로 인해서 나오는 것이로구나.' 하고 다시 놓는다면, 좋은 마음을 내서 거기 이익이 되게 놓는다면 유전성도 무너지고 영계성도 무너지고 세균성도 무너지고 모두가, 오간지옥이 다 무너진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막 솟구쳐 오르면 솟구쳐 오르는 대로 얼굴도 변하고 행과 말도 그냥 악의적으로 쏜살같이 나가게 합니다. 남에게 누가 되게 하고 남에게 듣기 싫게 하고 남이 안되게 마음을 내서 말을 함부로 하고 이런다면 그게 악이지 다른 게 악이 아닙니다. 꼭 사람을 죽여서만 악이 아닙니다. 마음 한 번 잘못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남을 이익하게 하는 일은 하시고, 악한 마음이 나올 때는 거기다 놓고 한번 굴려서 다시 좋은 마음으로 나오게끔 다스리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은 한마음의 도리로 모든 것을 커버해 나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바로 한마음이 되어야 공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음이 되지 못한다면, 둘로 보고 증오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말 함부로 하고 부드럽지 않게 행을 한다면 모두 악이 돼서 공덕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남한테 시주를 많이 하고 남한테 좋은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생각한다면 공덕이 되지 않습니다. 자식한테도 '한 게 없다'고 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희는 이렇게 하고 있으니' 하고서 착을 갖고 원망을 하고 그런다면 그게 공덕이 되지 않는 겁니다. 한마음으로 되질 않거든요.

부처님께서는 진드기의 발 하나도 발이 아니라고 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메뚜기의 발도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렇게

☞ 20면으로 계속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